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전북교육청-교육부 교원 지위 향상·교육활동 보호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공포

학교에서 교권 침해나 가해가 발생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전북교육청과 교육부는 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학

교장은 교육활동의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교육청은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장에 대한 업무 평가의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선 안된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같은 교육에는 해당 학생 학부모도 참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는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와 성폭력, 불법정보유통,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유형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특례보증제도 도입”

박혜숙 시의원 “2차보전을 전국 최고수준 시중 은행 배만 불러주는 결과 초래” 지적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특례보증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박혜숙 시의원(사진)(송천 1동)은 7일 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특례보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진행, 올해는 130개 업체에 총 130억원의 지원 규모를 책정해 중소 제조업체, 벤처기업, 바이전주, 소상공인 등에 융자 및 2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 상반기에는 총 59건, 72억6700만원이 지원 결정됐고, 분기별 2차보전금 지원도 2년간 62억8300만원이 지원된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융자신청을 통한 시중 8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전주시가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 2차보전이 전주시의 경우 일반기업은 3.5% 여성기업은 4% 벤처 및 바이전주업체와 우수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5%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해 시중 은행의 배만 불러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난과 수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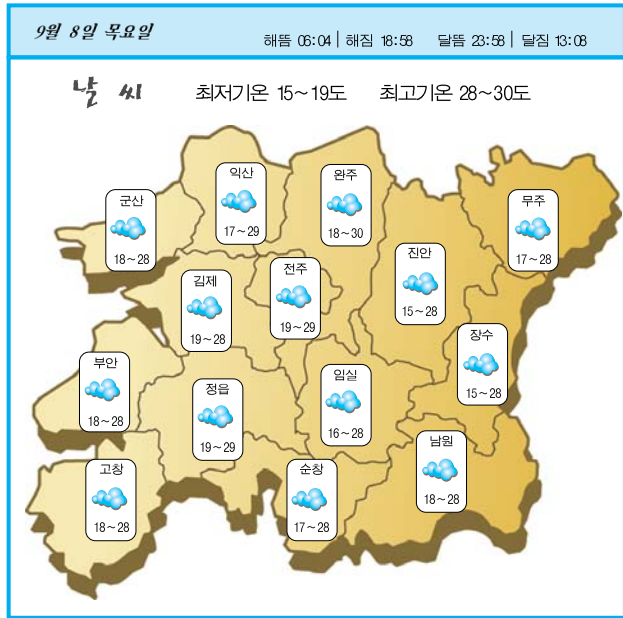


사회복지주관을 맞아 7일 서울 청계천 모천교 외 광릉도 사이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요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사회복지주간 기념 전시회가 열려 시민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의 날(9월 7일)과 사회복지 주간(9월 7~13일)을 기념하여 오는 11일까지 청계천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요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특례보증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례보증제도는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배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가 추천하는 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종이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전북도에서도 전주시와 진안군 고창군을 제외한 시·군은 모두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전주시 또한 곧 고갈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처할 수 있는 특례보증제도를 적극 도입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근거(제7조)를 마련한 바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소기업 육성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실적 금융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재기자



도내 초·중·고 예술동아리 락 페스티벌
전주·군산·고창서 개최... 비보이 등 34팀 참여

도내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락 페스티벌이 열린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예술동아리가 참여하는 락 페스티벌이 전주와 군산, 고창 등 3곳에서 분산 개최된다. 락 페스티벌에는 비보이 등 실용예술 8팀, 락밴드 26팀 등 총 34팀이 참여 오는 10월 전주 공연으로 시작으로 군산(28일)과 고창(10월8일)에서 잇따라 공연이 열린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연팀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우수 참가 동아리팀을 선정해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팔복동 지역사회참여 협의회
금학천 비점오염원 줄이기 방안 모색

LID시설·유량확보 등 사업계획 청취·자문 역할 수행 주력

전주 팔복동 지역의 도시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태동한 팔복동 지역사회참여 협의체가 7일 팔복동 주민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금학천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열린 지역사회참여 협의회 회의는 도시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주시가 용역을 추진 중인 금학천 LID시설과 유량확보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청취한 후 협의체 자체적으로 현장조사와 협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협의체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 김택천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환철 팔복 남양아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현숙 팔복동 봉우회 회장을 간사로 선출했다.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위원장과 간사가 구성됨에 따라 팔복동 산업단지 내 근로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도시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활동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김택천 위원장은 “금학천 주변에서 이뤄지는 철강정소화 사업과 더불어 팔복동지역의 도시 비점오염원을 줄여나가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협의체 자체적으로도 금학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캠페인과 정화활동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